

광주일보·아리랑국제평화재단 공동사업
연해주 통일농장을 가다

“한 줌 콩도 북녘 동포들엔 큰 희망”



지난 16일 러시아 연해주 미하일로프카시 다니엘로프카 '통일농장'에서 아리랑국제평화재단 관계자, 현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동포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콩재배 기공식이 열렸다. 500ha에 재배된 콩은 오는 11월 수확돼 북한동포 등에게 전달된다. /다니엘로프카(러시아 연해주) = 박지경 기자unipark@

광주·전남 지역민과 국민의 성금을 밑거름으로 북한 동포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연해주 통일농장' 사업이 시작됐다. 광주일보사와 사단법인 아리랑국제평화재단(이사장 조비오 신부), 한·러합작 기업인 '발해'는 지난 16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인근 미

침이다. 이와 함께 수확한 콩은 국내 복지 기관에도 메주와 청국장 재료로 보내진다. 통일농장에는 아리랑국제평화재단 관계자가 상주하며 현지의 고려인과 북한 주민 등 20여 명이 작업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아리랑국제평화재단과

에 이른 국내 농업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기초농업 개발을 통해 한반도 농업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북한도 담겨 있다.

체바스코 아나톨리 이바노비치 미하일로프카 시장은 "통일농장 사업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 증진은 물론 자원개발을 통해 공동번영에 힘을 기울이자"며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영진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사무총장은 "통일농장 사업은 우선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남한 동포들의 온정을 전하게 될 것이며 한국농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시험장으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니엘로프카(러시아 연해주) = 박지경 기자 unipark@kwangju.co.kr

지역민들 성금 등 밑거름 500여ha 농장서 콩 재배 식량난 시달리는 北 도와

하일로프카시 다니엘로프카 500ha (150만 평)의 '통일농장'에서 통일콩 재배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 빅토르 '발해' 대표이사, 박영진 아리랑 국제평화재단 사무총장, 본보 취재진 및 현지 주민 등이 참석했다.

연해주 통일농장에서는 오는 5월 25일 30t의 콩을 파종, 11월 500t을 수확한 후 식량난으로 영양공급이 크게 부족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두유와 청국장 원료로 제공한다.

통일농장에서는 북한 어린이 영양보충을 위해 북한 지역 탁아소와 소학교에 두유제조기도 함께 지원할 방

합작기업 '발해'는 연해주 다니엘로프카 지역 500ha의 토지를 이미 매입했으며 관련 농기계 준비도 마쳤다.

통일농장 사업은 최근 빚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곡물 난에 대비해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연해주를 통일시대 한반도 농업의 배후기지로 조성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연해주의 넓은 땅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더한 통일농장을 조성함으로써 남북 농업분야 협력의 새 모델로 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글로벌 농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한계

▲아리랑국제평화재단 =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해 지난 2006년 창설된 이래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연해주, 베트남 등지에서 경제협력과 장학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북한 어린이 영양공급과 글로벌농업을 위해 연해주 통일농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6일 러시아 연해주 다니엘로프카 '통일농장'에서 콩 재배를 위해 밭갈이를 하고 있다.

■ 연해주는 어떤 곳

면적 16만km² ... 200만명 거주
1890년 한국의 강제 이주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면적 16만 5천900km², 인구는 206만여 명이다. 주도(主都)는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또는 프리모르스키주라고도 한다. 북서쪽은 중국 동베이(東北) 지방, 남서쪽은 북한과 접하고, 남동쪽은 동해에 닿아 있다.

주민은 러시아인이 대부분이고, 우크라이나인·우레게이족·오로치족·나마이족·중국인과 한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860년 베이징조약(北京條約)에 의해 러시아령이 되어 군사기지로써 블라디보스토크가 건설되었다. 1890년대 일제에 의해 인근 간도 지방으로 강제이주한 조선인들의 자취도 서려 있다.

‘연해주 통일농장’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광주일보는 아리랑국제평화재단, 한·러합작 기업 '발해'와 함께 북한 동포와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한국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연해주 통일농장' 사업을 전개합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정부 보조금과 국민 성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주민과 국민의 성금은 북한 동포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혼이 서려있는 연해주를 발판으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기상을 드높여 줄 것입니다. 연해주 통일농장 사업에 1구좌(2만원) 이상 후원하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매년 7, 12월 연해주 통일농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시 숙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계좌 : 농협 653-01-014541 (예금주: (사)아리랑국제평화재단 연해주통일농장)
- ▲전화 : 광주일보 (062)220-0616, FAX(062)222-4918 아리랑국제평화재단 (062)368-3690, FAX(062)368-3692
- ▲홈페이지 : www.aipf.or.kr
- ▲E-mail : arirang-peace@aipf.or.kr karakji@hanmail.net